

한국, 석유 소비량 세계 7위 고수

BP, 2004년 하루 소비량 228만배럴 달해 ... 원유 정제능력은 5위

한국의 2004년 석유 소비량이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석유협회가 입수한 영국 BP(British Petroleum)의 석유통계 2005년판에 따르면, 2004년 국내 하루 석유 소비량은 전년대비 0.8% 감소한 228만배럴로 2년 연속 세계 7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석유 소비량은 1994년 세계 8위에서 1995년 6위로 오른 뒤 2002년까지 순위변화가 없었으나 2003년에는 인디아에 밀려 7위를 기록했다.

석유 소비량 1위는 세계 수요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으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고, 2위 중국과 3위 일본과의 하루 소비량 격차는 140만배럴까지 확대됐으며 독일, 러시아, 인디아, 한국이 차례로 4-7위에 올랐다.

원유 정제능력은 1일 259만8000배럴로 251만3000배럴인 인디아를 제치고 5위를 기록했다.

원유 정제능력 순위는 세계 정제능력의 20%를 점유하는 미국이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순으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2005/07/06>